

가족공유 여가시간 및 결정요인:
부부,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을 중심으로*

Shared Leisure Time with Couples, Preschool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and Their Determinants.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연 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 수 이 기 영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 수 조 희 금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이 승 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수료 김 하 닉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수료 한 영 선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Yon-Suk L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essor Oi-Sook Kim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Ki-Young Lee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

Professor Hee-Keum Cho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Seung-Mi Lee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

Ph. D Candidate Ha-Nui, Kim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

Ph. D Candidate Young-Sun, Han

* 본 연구는 2011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2010년도 통계청의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 분석” 연구의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 주저자: 이연숙(yonsuk@korea.ac.kr)

*** 교신저자: 김외숙(kimos@knou.ac.kr)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Studies of leisure time generally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amount of time spent by each family member in Korea. In this study, the shared leisure time among family members in various leisure activities was mainly investigated.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scribe how family members spent the leisure time together an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that affected whether or not family shared leisure time together.

The data source was the ‘2009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person involved in each activity was surveyed for the first time in the survey. The data from 17,470 diaries(10,359 weekdays and 3,549 Sunday) from 8,745 individuals aged from 20 to 59 who had a spouse were analyze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s were used.

On average, married couples spent leisure time together with spouses 36 minutes a day on weekdays and 1 hour and 38 minutes on Sunday, respectively. Parent did with preschool children 5 minutes a day on weekdays and 15 minutes on Sunday, respectively. The shared leisure time with other family and relatives was 22 minutes a day on weekdays and 1 hour and 13 minutes on Sunday, respectively. Although there was a wide variation on the shared family leisure time by the types of activities, the main shared leisure activity was using mass media, which accounts for about two third of all shared leisure time together with famil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the age, sex, education level, working hours, personal income, presence of preschool children, marital status, sex role attitude, and dual or single income earner were th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family’s or couple’s parent-preschool children’s shared leisure time on weekdays or Sunda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amily and leisure policy were suggested to increase active family shared leisure time.

Key Words : 가족공유 여가시간(Family Shared Leisure Time), 가족여가(Family Leisure),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 시간사용(Time Us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진전된 산업화로 인해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었고 가족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성격을 약화시켰다. 이 결과 개인의 가정에 대한 역할이나 중요성은 점점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개인주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경제발전이나 산업생산에 집중했던 사회적 가치는 직장과 일 중심의 생산을 중요시하는 생활로 나타나고 가정이나 가족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무시되기도 하였다(조희금 외 6인, 2010). 그러나 인간은 가정의 정서적, 관계적 기능을 통해 안정감과 전인적인 인간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성, 사회성은 가정생활을 통한 규칙, 협동, 양보, 질서를 통해 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유영주, 2001) 가족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활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생활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가 심하고 학교 또는 직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살아가며 물질만능주의, 성과위주의 평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게 해야 하며 위태롭고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과 행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임정빈 외 4인, 2008). 사회에서의 이러한 긴장과 경쟁상황은 가정의 정서적 기능의 필요성을 더욱 더 야기 시키고 있다. 즉, 가정은 내일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피곤한 몸을 충전하는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충족되지 못한 애정, 사랑 등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

력을 다져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함께 공유하는 행위는 가정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고 나아가서는 개인 및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천혜정, 2004).

일반적으로 여가는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일상으로부터의 기분전환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한다. 또한 기계문명의 팽배에 따른 인간의 피지배현상으로부터 자아를 탈출시켜 인간성의 해방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게하며 개인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여가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배우며 인간관계와의 조화로운 태도와 기술을 익히게 하는 사회적 기능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화적 기능,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한다(문숙재 외 3인, 2005).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람들은 일 뿐만 아니라 여가,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생활표준의 향상과 함께 균형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데 특히 여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휴업일 등은 개인의 여가뿐만 아니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여가활동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사람에게 노동관과 여가관의 변화, 나아가 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문숙재 외 3인, 2005).

2010년 국민여가활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4시간, 주말 7시간으로 2008년에 비해 평일 1시간, 주말 30분이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초·중·고등학교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앞으로 자녀들의 여가시간도 점점 증가할 것이다(뉴스천지, 2012). 이처럼 부모와 자녀세대의 여가시간 및 기회가 증가하면서 가족여가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의 결과로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콘텐츠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 경제발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다양한 여가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즉 막상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가에 대한 경험이나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가를 즐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여가경험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집단을 통해서도 습득이 가능하다. 특히 여가활동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등 여가를 즐기는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인 단위의 여가 보다는 집단 특히 가족 단위의 여가가 효과적일 수 있다.

가족 단위 여가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전체 관점에서 볼 때는 점점 소외되고 약화되어 가는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 및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부부에게는 여가를 통한 즐거움,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 결혼생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여가로 인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려면 여가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경력으로써도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혼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원, 환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모차원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적절하게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 때의 이러한 여가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좀 더 맞는 여가를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가족 단위 여가활동은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윤소영·윤지영, 2004; 천혜정, 2004; Hill, 1998; Shaw, 1999)

그러나 그동안 여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여가활동 시간량(이승미·이기영, 1998; Davey & Paolucci, 1980; Gatenby, 2001),

여가활동 유형(윤소영·윤지영, 2003; 지영숙·이태진, 2001), 여가 장애요인(이주연, 2009),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안동선, 1982; 홍성희, 1996; Kingston & Nock, 1987) 등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가족원이 공동으로 여가활동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국내연구는 발견되고 있으나(이기영 외 2인, 1995) 전국적인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족공유 여가시간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통계청에서 시행했던 1차와 2차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개인들의 개별적 활동에 대한 생활시간은 조사되어 왔으나 가족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생활시간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에 조사된 통계청의 「제 3차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생활시간이 조사되어 가족공유 여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공유 여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에 조사된 통계청 「제 3차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20-60세 미만의 기혼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공유 여가시간의 실태를 분석하고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 3차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최초로 “함께 한 사람”에 대해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그 외 가족 및 친척, ⑤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과 함께 한 여가시간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공유 여가를 공유 대상별로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유 대상별 가족여가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와의 여가 공유,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공유를 결정짓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의 여가 공유에 제한을 받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노동정책,

임금정책, 여가정책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가시간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공유 여가시간 실태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가족공유 여가시간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비율 및 행위자평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족공유 여가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1] 가족공유 여가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 여가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공유시간과 가족공유 여가시간의 개념 및 의의

가족공유시간을 개념정의 할 때 활동을 중심으로 가족공유 식사, 가사노동, 여가시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윤소영·윤지영, 2003; 홍성희, 1996, Knowles, 2004; Orthner, 1975)에서는 가족공유시간이란 개념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연구목적 또는 공유활동에 따라 가족공유시간을 개념정의하며 이를 가족공유시간의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승미·이기영(1998)은 가족공유시간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가족원 두 사람 이상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라고 개념정의하고 부모-자녀 공유시간은 동일한 장소에서 부모와 자녀 한 명이상이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을 조사한 손문금(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가족공유시간과 공유활동을 동일한 장소에서 부부가 동일한 활동에 책임을 함께 하며 참여한 행동과 시간으로 집안 또는 집 밖에서 수행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서로의 공유인식 차이로 인한 공유시간량 차이를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즉 기존의 대상, 장소, 활동을 기준으로 한 개념정의에서 인식(또는 책임)도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가족공유 여가시간은 주로 ‘가족여가’, ‘가족단위 여가’ 등의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가족여가란 개념은 이전부터 서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생활에 있어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개념은 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자유시간 또는 레크레이션 활동을 의미하는데(문숙재 외 3인, 2005) 가족여가의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달리 규정짓고 있다. 이호경(1995)은 가족여가는 가족원 전체가 참여하는 여가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가족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가족여가로 보기도 한다(지영숙·이태진, 2001). Barnet-Verzat, Pailhe와 Solaz(2007)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부부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부부 공유 여가를 정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원은 핵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동거 중인 남편과 아내의 부모 및 형제까지 함께 하는 여가를 가족여가로 보기도 하였다(김외숙, 1977; 홍성희 1996). 또한 가족여가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부부만 하는 여가활동, 부부 중 한 사람과 자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 두 명 이상의 자녀끼리 하는 여가활동, 확대가족

여가활동 등을 모두 포함한다(계선자 외 13인, 2009).

이상의 개념을 정리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공유 여가란 가족구성원 중 2인 이상이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이며, 가족 공유 여가시간은 이러한 공유 여가활동을 함께 한 시간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다.

인간은 혼자서라도 여가를 즐길 수 있으나 사회적 존재로서, 여가생활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한데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특히 중요한 여가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윤소영·윤주, 2008; 천혜정, 2004).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이 가족 단위 혹은 부부 단위, 부모-자녀 단위로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송정애 외 2인, 2009). 가족 단위 여가활동은 가족의 심리적 만족 및 가족의 안정성,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아동의 사회적 발달 및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Shaw, 1999). 반면, 가족여가의 단점으로는 성별에 따른 가족여가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원 간 상대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또한 가족구성원 개 개인의 사생활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문숙재 외 3인, 2005). 이렇듯 가족단위 여가활동은 장·단점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가족여가를 공유함으로써 가족 결속력과 가족 구성원들 간 유대와 화합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2. 가족공유 여가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가족의 공유여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발견되고 있다. 여기

에서는 가족공유 여가를 분석한 연구와 여가 이외의 다른 활동의 가족공유시간을 분석한 연구 중 여가활동 공유시간 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간의 여가공유, 부모자녀 간의 여가공유, 가족 전체와의 여가공유와 관련된 연구와 이러한 여가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부간 여가 공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해보겠다. Orthner(1975)는 미국의 남동부 지역 도시의 부부(남편 216명; 부인 226명)의 여가 유형을 ‘개별여가활동(individual leisure activities)’, ‘평행여가활동(parallel leisure activities)’, ‘공유여가활동(joint leisure activit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별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혼자 하는 여가활동이고, 평행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긴 하지만 공동의 관심이 있는 자극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여가활동이고, 공유활동은 행위의 수행 완수를 위하여 참가자들 사이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혼자서 하는 개별여가활동이 전체 여가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고(평행여가활동 24.5%, 공유여가활동 31.7%) 가족생활주기(marital career periods)가 부부의 여가활동 유형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안동선(1982)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여 여가활동을 ‘혼자형’, ‘parallel형(37.2%)’, ‘남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joint형’으로 구분했는데 ‘남편과의 joint형(33.7%)’에 보내는 시간이 가장 적고 ‘혼자형(45.4%)’에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과 여가시간을 공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 외 2인(1995)의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9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공유여가시간과 결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부는 주중에는 1시간 18분, 토요일에는 2시간

53분, 일요일에는 5시간 32분을 여가시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부부공유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나이와 교육수준과 부인의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들이 여가시간을 공유할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공유와 결혼만족도와 의 긍정적 관계는 Knowles(2010)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Kingston과 Nock(1987)은 177명의 미국 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시간일지를 분석하여 부부 사이의 공유시간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추정한 공유시간을 분리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여가공유와 관련된 활동인 ‘Fun’, ‘담화’, ‘TV 시청’ 부분을 살펴보면 ‘Fun’활동의 경우는 비맞벌이 남편은 36.9분, 부인은 46.4분, 맞벌이 남편은 31.6분, 부인은 27.8분을 부부가 공유한다고 응답하였다. ‘담화’활동의 경우는 비맞벌이 남편과 부인 모두 18.5분, 맞벌이 남편은 10.7분, 부인은 12.7분을 부부가 공유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TV 시청’의 경우는 비맞벌이 남편은 74.2분 부인은 61.6분, 맞벌이 남편은 57.2분, 부인은 44.4분을 부부가 공유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비맞벌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보다 여가관련 공유활동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총 노동시간, 휴무시간, 가족지위, 결혼 지속기간 등이 세 가지 부부 공유 여가활동 모델에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2000년도 시간일지 조사를 분석하여 부부간 공유 시간을 분석한 Gatenby(2001)연구에서 부부의 총 여가 공유 시간을 보면 주중에는 4시간 38분, 주말에는 6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 중 가장 공유시간이 긴 활동은 TV 시청으로 나타났는데 주중에는 2시간 16분 주말에는 2시간 38분으로 나타났다.

Barnet-Verzat, Palhe, 와 Solaz(2007)은 프랑스의 시간조사 자료(INSEE 1998-1999)를 이용하여 부부의 여가 공유에 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동시에 하는 여가 공유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경우 주중에는 9시간 21분이고 주말에는 12시간 16분이었다. 전일제로 일하는 배우자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주중에는 8시간 58분이고 주말에는 11시간 52분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말에 부부간 여가 공유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TV 시청 공유가 모든 공유활동 중 주중에는 2위, 주말에는 3위 공유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시간은 각각 42분과 57분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오락과 문화활동 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활동들이 드물게 행해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의 여가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 연령, 직업유형, 업무스케줄, 교육수준, 평일 혹은 휴일여부, 자녀 연령과 숫자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부모 자녀와의 여가 공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이승미·이기영(1998)의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 연구에서 부모자녀와의 공유시간은 생활시간 영역에 관계없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갈수록 부모와 자녀의 공유 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긴 공유 여가시간은 TV 시청시간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녀의 적극적 여가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자녀 연령, 부인의 취업여부, 가계소득, 남편의 결혼관, 남편의 가족 응집성이었고, TV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자녀 연령,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취업여부, 남편의 취업역할 중요도, 남편의 가족 응집성으로 나타났다.

1997년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활용하여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 1,761명 대상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다양한 활동의 공유시간을 분석한 Yeung, Sandberg, Davis-Kean, 과 Hofferth(2001)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중 아버지-자녀 공유 놀이(play/companionship)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연령대, 아버지의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연령, 어머니 소득이었다. 또

한 공유 사회적활동(social activ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연령대, 아버지의 교육수준, 자녀 유무로 나타났다.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 다양한 공유 활동을 분석한 Bryant와 Zick(1996)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수입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자녀 간 공유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 부모-자녀, 가족공유 시간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Roeters와 Treas(2011)는 적어도 한 자녀가 있는(minor children) 898명의 Dutch 부부의 시간 일지를 대상으로 부모의 직업요구가 부모자녀공유, 가족공유, 부부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자녀 공유 여가에는 아버지 노동시간,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이, 어머니-자녀 공유 여가에는 전일제 맞벌이 부부여부, 막내 자녀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유의미한 변수였다. 또한 가족여가 공유 활동은 아버지의 총 노동시간, 막내자녀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부부의 공유여가활동에는 전일제 맞벌이 부부여부, 아버지의 노동시간, 막내자녀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노동시간, 막내자녀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이 모든 유형의 가족공유 여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Davey와 Paolucci(1980)는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가족 간 공유시간과 공유활동을 통해 가족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부모와 1명 또는 2명 또는 3명의 자녀로 구성된 126가족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중 공유 여가활동(social) 분석 결과를 보면 부부간 여가 공유시간은 집에서 아침에 20분, 모든 가족이 공유하는 여가는 저녁에 집에서 1시간, 모든 자녀가 공유하는 여가는 저녁에 집에서 40분, 부모와 2자녀가 공유하는 여가는 아침에 집에서 15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부부 또는 부

모-자녀 등 가족공유 여가 시간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 또한 부부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다양한 여가를 즐긴다고 보다는 혼자 여가를 즐기거나 함께 즐기더라도 TV시청 등 소극적 활동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여가를 공유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부 여가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자녀와의 여가 공유는 부부와의 여가 공유와 비슷하게 시간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TV 시청이 가장 높았다. 부모-자녀 여가 공유는 주로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노동시간, 자녀 연령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분석자료는 200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제 3차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이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여 국민 계정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이나 학문적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1999년도를 시작으로 5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약 8,1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약 2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차 생활시간조사」는 1년 중 1회(9월)만 조사하던 1, 2차 때와는 달리 2회(3월, 9월) 실시하였는데 시간사용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조사시점으로 인한 응답의 치우침(bias)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응답자당 2일씩 시간일지를 작성하며 조사부문은 가구관련사

항(4개 항목), 개인관련사항(17개 항목), 생활시간 사용 만족도(1개 항목)로 구성되며 가구 및 개인 관련사항은 면접조사로, 시간일지 및 생활시간사용 만족도는 자기기입식조사로 진행된다. 시간일지(time diary)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응답자가 2일 동

안 직접 기입하는 것(after-cody diary)을 말한다 (<http://survey.go.kr/lifestyle>).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혼자 중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며 농가 및 단독가구는 제외하였다. 「제 3차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함께 한 사람”을 조사항목

〈표 1〉 분석대상의 특성

단위: 빈도(다이어리 수)(%)

변수	구분	전체	성별	
			남	여
연령	20-29세	460(5.0)	145(3.4)	315(6.4)
	30-39세	2,779(30.3)	1,195(28.0)	1,584(32.2)
	40-49세	3,651(39.9)	1,787(41.9)	1,871(38.1)
	50-59세	2,282(24.9)	1,140(26.7)	1,141(23.2)
	평균(표준편차)	43.2세(8.3)	44.0세(8.0)	42.5(8.5세)
교육수준	중졸	1,496(16.3)	529(12.4)	967(19.7)
	고졸	4,453(46.6)	1,933(45.3)	2,520(51.3)
	대졸	2,927(33.8)	1,589(37.2)	1,338(27.2)
	대학원	303(3.3)	432(5.1)	87(1.8)
노동시간	없음	2,420(26.4)	257(6.0)	2,163(44.0)
	하	2,153(23.5)	978(22.9)	1,175(23.9)
	중	2,570(28.0)	1,644(38.5)	926(18.9)
	상	2,036(22.2)	1,388(32.5)	648(13.2)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2,310(25.2)	80(1.9)	2,230(45.4)
	100만원 미만	1,549(16.9)	345(8.1)	1,204(24.5)
	100-200만원 미만	2,315(25.2)	1,298(30.4)	1,017(20.7)
	200-300만원 미만	1,593(17.4)	1,316(30.8)	277(5.6)
	300만원 이상	1,412(15.4)	1,228(28.8)	184(3.7)
배우자 유무	있음	8,745(95.3)	4,130(96.8)	4,615(94.0)
	없음(사별, 이혼)	434(4.7)	137(3.2)	297(6.0)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2,234(24.3)	1,105(25.9)	1,129(23.0)
	없음	6,945(75.7)	3,162(74.1)	3,783(77.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07(48.0)	2,123(49.8)	2,284(46.5)
	비맞벌이	4,772(52.0)	2,144(50.2)	2,628(53.5)
성역할 태도	전통적	3,864(42.1)	2,153(50.5)	1,711(34.8)
	근대적	5,315(57.9)	2,114(49.5)	3,201(65.2)
합계		9,179(100.0)	4,267(100.0)	4,912(100.0)

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그 외 가족 및 친척, ⑤ 기타로 분류되어 미혼인 상태가 많은 미성년자의 경우(알아보기) 배우자나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에는 해당되지 않아 분석에 제외시켰다. 또한 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망이나 은퇴 등으로 인해 시간사용에 있어 다른 특성을 보이며 농업의 경우 주로 가족들이 함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가도 분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공유 시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주행동”에 제한되어 있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주행동”을 분석대상행동으로 하였으며 대부분 생활시간조사 분석은 요일별 차이를 고려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거나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일별 차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일요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제 3차 생활시간조사」에서 함께 한 사람들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그 외 가족 및 친척, ⑤ 기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복수응답도 허용하였다. 예를 들어 TV를 ② 배우자와 ③ 미취학자녀와 함께 보았다면 응답자는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에 체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가족공유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둘을 단순히 더하게 되면 “가족공유시간”이 과대추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총 여가시간에서 ① 혼자 및 ⑤ 기타와 함께 한 시간을 뺀 시간이 “가족공유시간”으로 계산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족공유시간”이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시간을 단순히 합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각각의 시간을 더한 것과 “가족공유시간”으로 제시한 것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총 14,614개(평일 10,902개, 일요일 3,712개)이며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표 1>과 같다.

2.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lus(S+)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활시간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통합한 후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 버전을 이용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공유 여가시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는데 분석결과를 우리나라 성인 기혼자의 가족공유 여가시간으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가구원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의 종속변수는 첫 번째로, 가족 즉 배우자, 미취학 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 중 한 사람 이상과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한 경우인 가족여가 공유여부가 되며 두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만 추출하여 배우자와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한 경우인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여부가 되며 마지막으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들만 추출하여 미취학 자녀와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한 경우인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 공유여부가 된다. 단, 분석데이터에서 ‘그 외 가족 및 친척’의 존재유무는 확인할 수 없어 분석에 포함

1) TIBCO 소프트웨어 주식회사가 개발한 상업구현 프로그래밍 언어로 S-PLUS는 전문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이다(<http://en.wikipedia.org>; <http://www.splusbook.com>). 또한 윈도우 환경의 프로그램들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등의 교환이 쉬우며 많은 독창적인 자료분석 기능을 갖고 있다(나중화·김정숙, 2000)

되지는 못했다.

3.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표 2>와 같다.

IV. 연구결과

1. 여가시간의 실태

우선, 평일의 행위자별 여가의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일 전체 여가시간은 3시간 44분이며 이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 3시간 32분, 여성 3시간 55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3분이 길다. 이를 행위자별로 살펴보면 혼자 여가를 즐긴 경우가 2시간 5분(53%)이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52분(25.9%), 기타가 47분(21.2%)으로 혼자 하는 경우가 가족과 공유하는 경우보다 2배 이상 길었다. 남성은 혼자 하는 경우가 2시간 2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46분, 여성은 혼자 하는 경우가 2시간 6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58분으로 남녀 모두 혼자 하는 여가활동을 하는 시간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2배 이상 길다. 여가의 시간량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3분 더 많지만 남성의 경우 총 여가시간에서 혼자 여가를 즐기는 시간 비율이 55.1%로 여성에 비해 약 4.2%로 많았

<표 2>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변수값
독립변수	성별	여성: 1(남성: 0)
	연령 (기준: 20-29세)	30-39세: 1(그 외: 0) 40-49세: 1(그 외: 0) 50-59세: 1(그 외: 0)
	교육수준 (기준: 고졸)	중졸: 1(그 외: 0) 전문대 및 대졸: 1(그 외: 0) 대학원 이상: 1(그 외: 0)
	노동시간 (기준: 중)	없음: 1(그 외: 0) 하: 1(그 외: 0) 상: 1(그 외: 0)
	개인 월평균소득 (기준: 100-200 미만)	없음: 1(그 외: 0) 100만원 미만: 1(그 외: 0) 200-300만원 미만: 1(그 외: 0) 300만원 이상: 1(그 외: 0)
	배우자 유무	있음: 1(없음: 0)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1(없음: 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비맞벌이: 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님)
종속변수	가족여가 공유여부 (배우자+미취학자녀+그 외 가족 및 친척)	공유: 1(비공유: 0)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여부	공유: 1(비공유: 0)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공유여부	공유: 1(비공유: 0)

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약 3.8%정도 더 많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평균 여가시간은 5시간 35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51분 길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6시간 21분으로 평일보다 2배 가까이 긴 반면 여성은 4시간 52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못되게 긴 수준이다. 일요일에 혼자 여가를 하는 경우는 평균 2시간 24분(42.4%)으로 평일보다 19분 길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2시간 8분(40.3%)으로 평일보다 1시간 16분 길고, 기타 사람과 여가를 공유하는 시간은 1시간 3분(17.3%)이다. 이는 평일보다 16분 증가하여 혼자나 기타 사람과 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의 증가가 더 컸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 혼자 하는 경우가 2시간 59분으로 평일보다 57분 길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2시간 12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26분이 길어, 혼자 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의 일요일 증가가 더 컸다. 여성은 혼자 하는 경우가 1시간 51분으로 평일보다 15분 감소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2시간 4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6분 증가하였다.

따라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는 남녀 모두 가족과의 공유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는 혼자 하는 여가 시간량이 남자에 비해 줄고 있는데 줄어든 시간만큼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요일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

는 절대적인 시간량은 남성이 더 많으나 비율로 비교해보면 여성이 본인 시간의 45.0% 정도를 가족에게 배분하고 있어 총 여가시간량 대비 가족에게 배분하는 비율에 성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취업유무, 자녀양육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가족공유 여가시간 실태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

가족공유 여가시간의 실태는 가족공유 여가시간, 가족공유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으로 살펴보았다.

1) 가족 공유 여가시간 실태

<표 4>에 의하면 평일의 여가시간 중 혼자 하는 경우가 2시간 5분인데 반해(<표 3> 비교 참조), 가족이 공유하는 경우가 52분으로 혼자 하는 시간의 반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다.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이 36분, 미취학 자녀와는 5분, 그 외 가족 및 친척과는 22분으로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는 주중에 배우자와의 공유여가시간이 1시간 18분으로 나타난 이기영 외 2인(1995)의 연구결과나 Gatenby(2001)의 4시간 38분으로 나타난 영국 부부의 주중 여가 공유시간, 주중의 프랑스 부부의 8시간 넘는 부부 공유시간(Barnet-Verzat et.al.,

〈표 3〉 여가의 평균시간 및 비율

(단위:시간:분, ()는 비율)

		전체			혼자			가족			기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시간	평일	3:44 (100.0)	3:32 (100.0)	3:55 (100.0)	2:05 (53.0)	2:02 (55.1)	2:06 (50.9)	0:52 (25.9)	0:46 (23.9)	0:58 (27.7)	0:47 (21.2)	0:43 (21.0)	0:51 (21.3)
	일요일	5:35 (100.0)	6:21 (100.0)	4:52 (100.0)	2:24 (42.4)	2:59 (47.1)	1:51 (37.9)	2:08 (40.3)	2:12 (35.4)	2:04 (45.0)	1:03 (17.3)	1:09 (17.4)	0:57 (17.1)

2007)에 비하여 훨씬 짧은 것이다.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 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이 34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이 교체 활동으로 12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4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이 1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다른 여가활동은 가족 공유시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평일의 가족과의 공유여가 시간의 대부분이 미디어이용과 교체활동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TV 시청이 공유 여가시간 중에 가장 길게 나타난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이기영 외 2인, 1996; Gatenby, 2001; Kingston & Knock, 1987).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는 배우자와 공유한 시간이 24분, 미취학 자녀와는 3분, 그 외 가족 및 친척은 12분으로 배우자와 공유한 시간이 가장 길고 미취학 자녀와 공유한 시간이 가장 짧다. 교체활동의 가족형태별 공유시간은 배우자가 6분, 미취학 자녀가 1분, 그 외 가족이 8분으로 그 외 가족 및 친척, 배우자, 미취학 자녀의 순이었다.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을 살펴보면(<표 5>) 혼자 여가를 즐긴 경우가 2시간 24분으로 평일보다 19분 많은 반면 가족공유는 2시간 8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6분 많아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혼자보다는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의 증가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비교 참조). 이러한 결과는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이기영 외 2인, 1995; 이승미·이기영, 1998; Gatenby, 2001; Kingston & Knock, 1987)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평일과 비교해보면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는 15분,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는 1시간 13분으로 평일보다 각각 10분, 51분이 늘어난 데 반해 배우자와의 공유는 1시간 38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2분이 늘어났다. 이는 일요일에 증가한 가족공유 여가시간의 대부분이 배우자와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시간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요일에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시간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의 배우자공유 여가 시간이 5시간 32분으로 나타난 이기영 외 2인(1995)의 연구, 영국 부

〈표 4〉 가족공유 여가시간(평일)

(단위:시간:분)

여가활동	가족전체			배우자			미취학 자녀			그 외 가족·친척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0:52	0:46	0:58	0:36	0:37	0:35	0:05	0:03	0:06	0:22	0:16	0:27
교체활동	0:12	0:09	0:15	0:06	0:07	0:06	0:01	0:00	0:01	0:08	0:04	0:11
일반인의 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 이용	0:34	0:32	0:36	0:24	0:25	0:23	0:03	0:02	0:04	0:12	0:10	0:14
종교활동	0:00	0:00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0:04	0:03	0:05	0:03	0:03	0:04	0:01	0:00	0:01	0:01	0:01	0:02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교체 및 여가활동 물품 구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여가관련 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의 주말 배우자 공유여가시간이 6시간 13분으로 나타난 Gatenby(2001)의 연구, 주말의 프랑스 부부의 11시간 넘는 부부공유 시간(Barnet-Verzat et.al., 2007)에 비하여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가족공유 여가시간 중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은 1시간 19분으로 평일보다 45분이, 교제활동은 25분으로 13분이,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15분으로 11분이 증가하였다. 평일에 비하여 가장 증가한 가족공유 여가시간은 미디어 이용으로 나타났다(<표 4> 비교 참조). 이외에 종교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도 모두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공유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여가활동 세부영역별로 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이용의 경우,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배우자가 54분으로 평일보다 30분이나 증가하고 그 외 가족은 39분으로 27분이 증가했다. 미취학 자녀와는 9분으로 6분이 증가해서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가족공유형태 중 배우자와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시간의 증가가 가장 컸다. 교제활동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이 9분,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시간이 12분 증가하여 그 외 가족과의 공유시간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반해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경우,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10분,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는 2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5분 증가하여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의 경우 평일에는 배우자나 미취학 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시간이 거의 없었으나 일요일에는 11분과 2분, 4분으로 나타나 일요일만 배우자나 미취학 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과 함께 종교활동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경우는 미미하지만 배우자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시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

(표 5) 가족공유 여가시간(일요일)

(단위:시간:분)

여가활동	가족전체			배우자			미취학 자녀			그 외 가족·친척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2:08	2:12	2:04	1:38	1:44	1:33	0:15	0:16	0:15	1:13	1:13	1:12
교제활동	0:25	0:26	0:24	0:15	0:16	0:15	0:01	0:02	0:01	0:20	0:21	0:20
일반인의 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 이용	1:19	1:21	1:18	0:54	0:57	0:51	0:09	0:10	0:09	0:39	0:39	0:39
종교활동	0:03	0:03	0:03	0:11	0:11	0:11	0:02	0:01	0:02	0:04	0:03	0:05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02	0:02	0:02	0:02	0:02	0:02	0:00	0:00	0:00	0:01	0:01	0:01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0:15	0:16	0:14	0:13	0:14	0:13	0:03	0:03	0:02	0:06	0:07	0:06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03	0:03	0:02	0:02	0:02	0:02	0:00	0:00	0:00	0:02	0:03	0:02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여가관련 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의 공유와 그 외 가족 및 친척에 비해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으며 자녀의 정서적,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모든 여가활동에서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역에서의 여가활동이 거의 없거나 5분 미만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의 균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

평일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을 보면(<표 6>) 응답자의 68.5%가 어떤 가족공유형태이든지 상관없이 가족과 여가시간을 공유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시간을 보면 1시간 16분이다. 그 중 남성은 63.5%가 1시간 13분, 여성은 73.1%가 1시간 19분을 가족과 공유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 높았고 평균 시간은 6분 길게 나타났다.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의 공유는 51.6%에 1시간 9분,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는 7.2%에 1시간 6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37.2%에 59분으로 배우자와 공유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평일의 배우자와의 여가공유 행위자 비율이 79.4%로 나타난 이기영 외 2인(1995)의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의 교제 및 적극적 여가활동의 가족공유 여가를 분석한 Sayer(2010)의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 대상자의

교제활동과 적극적여가의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성이 53.4%에 1시간 8분, 여성이 50%에 1시간 10분,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는 남성 5.7%에 1시간 1분, 여성 8.6%에 여성 1시간 9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성 27.2%에 59분, 여성 46.5%에 59분으로 배우자와의 공유비율은 남성이 많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여성이 길고, 미취학 자녀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여성이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수준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에서는 행위자 비율이 여성이 훨씬 높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에 참여하는 비율은 남녀 간 다르지만 일단 공유를 하게 되면 참여시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가 중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48.7%에 1시간 9분, 교제활동은 36.5%에 34분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거의 반이 미디어 활동을, 1/3을 넘는 수가 교제활동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었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5.8%에 1시간 11분으로 미디어 이용이나 교제활동보다는 행위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행위자 평균은 미디어 이용과 같은 수준이다. 이 세 여가 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가활동의 가족공유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배우자와의 공유 행

1) 미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 중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 공유를 한 사람의 비율이 7.2%임(전체 대상 중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3%임)

2) Sayer(2010)의 연구에서 적극적 여가 중 기혼여성: 15%가 배우자와 함께(7분), 14%는 자녀와 함께(6분), 18%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11분) / 기혼남성: 14%가 배우자와 함께(8분), 6%는 자녀와 함께(4분), 18%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13분)

위자 비율이 높은 활동은 미디어 이용(36.6%), 교제(22.2%)활동이고, 이들의 평균시간을 보면 각 1시간 5분과 29분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배우자 공유 행위자 비율은 4.5%에 1시간 15분으로 미디어 이용이나 교제활동보다는 행위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행위자 평균은 미디어 이용과 같은 수준이다.

미취학 자녀와의 행위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1% 내외(미디어 이용의 경우만 5.3%)로 낮으나 행위자 평균 공유시간이 비교적 많은 여가활동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종교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미디어 이용으로 나타났다. 이들 활동의 경우 자녀와의 공유 시간은 1시간을 넘거나 거의 1시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남녀 별 차이를 보면 행위자 평균시간이 종교활동과 관람 및 문화 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행위자 평균 비율이 높은 활동은 교제활동이 22.7%로 가장 높고 미

디어 이용이 19.4%로 다음으로 높으며 나머지 활동은 1% 내외로 낮은 행위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요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을 보면 (<표 7>) 응답자의 84.7%가 가족과 여가를 공유해 평일보다 16.2% 높았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2시간 31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5분 많아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과 공유하는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일요일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남성은 84.1%에 2시간 37분, 여성은 85.3%에 2시간 25분으로 평일에 비해 남성은 20.6%에 1시간 24분, 여성은 12.2%에 1시간 6분 증가해 남성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의 증가가 높았다. 또한 남성이 행위자 비율은 여성보다 1.2% 낮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12분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가에 가족공유로 참여하는 남녀 간 격차가 일요일에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족공유형태별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69.7%에 2시간 21분, 미

<표 6>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단위:%,시간:분)

	가족전체									배우자			미취학 자녀			그 외 가족·친척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68.5	63.5	73.1	1:16	1:13	1:19	51.6	53.4	50.0	1:09	1:08	1:10	7.2	5.7	8.6	1:06	1:01	1:09	37.2	27.2	46.5	0:59	0:59	0:59
교제활동	36.5	30.7	42.2	0:34	0:31	0:36	22.2	23.4	21.1	0:29	0:28	0:29	1.6	1.4	1.9	0:37	0:32	0:40	22.7	13.3	31.4	0:34	0:33	0:35
일반인의 학습	0.1	0.1	0.1	1:41	1:45	1:38	0.1	0.1	0.1	1:52	1:50	1:47	0.0	0.0	0.0	0:40	0:00	0:40	0.0	0.0	0.1	1:18	0:51	1:30
미디어 이용	48.7	46.4	50.8	1:09	1:09	1:10	36.6	38.3	35.1	1:05	1:05	1:06	5.3	3.9	6.6	0:58	0:58	0:59	19.4	16.3	22.2	1:02	1:04	1:01
종교활동	1.0	0.9	1.0	0:51	0:49	0:52	1.2	1.2	1.2	1:11	1:02	1:20	0.3	0.2	0.3	1:16	1:34	1:07	0.4	0.3	0.6	0:58	0:52	1:00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4	0.3	0.4	1:35	1:33	1:36	0.3	0.3	0.3	1:32	1:33	1:30	0.1	0.1	0.1	1:41	1:47	1:36	0.2	0.1	0.2	1:28	1:15	1:35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5.8	4.7	6.8	1:11	1:09	1:13	4.5	4.4	4.6	1:15	1:12	1:17	0.9	0.5	1.3	0:59	0:57	0:59	1.5	0.8	2.2	1:12	1:13	1:11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1.7	1.7	1.7	0:48	0:51	0:45	1.2	1.1	1.2	0:52	1:57	0:49	0.3	0.3	0.3	0:45	0:38	0:52	1.0	1.0	1.0	0:47	0:45	0:49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	0.4	0.3	0.6	0:30	0:24	0:33	0.3	0.3	0.3	0:30	0:29	0:30	0.1	0.1	0.1	0:25	0:11	0:32	0.2	0.1	0.3	0:31	0:12	0:34
기타 여가관련 행동	0.2	0.2	0.2	0:24	0:23	0:24	0.2	0.2	0.2	0:28	0:26	0:30	0.0	0.0	0.1	0:17	0:00	0:17	0.1	0.0	0.1	0:17	0:20	0:15

취학 자녀와의 공유는 13.6%에 1시간 52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59.8%에 2시간 2분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비율의 경우 평일에 비해 증가한 정도는 그 외 가족 및 친척과 배우자와 공유하는 경우가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에 비해 두드러졌다. 그리고 배우자와 공유하는 경우가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의 공유에 비하여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 행위자율은 56.1%,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 행위자 비율은 약 10% 낮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모두 2시간 내외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요일의 배우자와의 여가공유 행위자 비율이 96.6%로 나타난 이기영 외 2인(1995)의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성이 71.9%에 2시간 24분, 여성이 67.6%에 2시간 18분,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는 남성 14%에 1시간 53분, 여성 13.3%에 1시간 52분이었다.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성 56.1%에 2시간 11분, 여성 63.4%에 1시간 54분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모든 가족공유형태에서 가족의 여가공유의 행위

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공유와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의 경우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의 경우는 행위자 비율은 여성이 높으나 평균시간은 남성이 길게 나타났다. 대체로 평일에는 여성이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이 긴 것에 비해 일요일에는 남성이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도 높고 평균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평일에 직장일 등으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여가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Yeung, Sandberg, Davis-Kean, 과 Hofferth(2001), Roeters와 Treas(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노동시간, 소득 변수가 자녀와의 여가 공유에 있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가 중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은 69.6%에 1시간 54분, 교제활동은 43.4%에 57분으로, 종교활동은 3.7%에 1시간 23분으로 각각 평일보다 20.9%에 54분, 2.9%에 15분, 2.7%에 32분 증가해 미디어 이용의 일요일

<표 7>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단위:%,시간:분)

	가족전체									배우자						미취학 자녀						그 외 가족·친척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84.7	84.1	85.3	2:31	2:37	2:25	69.7	71.9	67.6	2:21	2:24	2:18	13.6	14.0	13.3	1:52	1:53	1:52	59.8	56.1	63.4	2:02	2:11	1:54			
교제활동	43.4	40.2	46.4	0:57	1:04	0:51	31.4	32.2	30.7	0:49	0:51	0:47	3.2	3.4	3.0	0:42	0:45	0:39	33.4	28.7	38.0	1:01	1:15	0:52			
일반인의 학습	0.1	0.0	0.2	1:28	0:00	1:28	0.1	0.0	0.2	1:25	1:00	1:26	0.0	0.0	0.0	0:00	0:00	0:00	0.1	0.0	0.1	0:26	0:00	0:26			
미디어 이용	69.6	69.6	69.6	1:54	1:57	1:52	53.2	54.9	51.7	1:42	1:45	1:39	9.9	10.3	9.5	1:33	1:33	1:33	38.8	38.2	39.3	1:39	1:40	1:39			
종교활동	3.7	3.5	3.9	1:23	1:21	1:24	8.2	8.2	8.2	2:12	2:17	2:08	1.6	1.4	1.8	1:46	1:42	1:49	4.4	3.4	5.4	1:31	1:29	1:32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1.7	1.6	1.8	1:54	1:55	1:52	1.4	1.5	1.3	2:01	1:58	2:05	0.2	0.2	0.2	1:13	1:09	1:16	0.9	0.7	1.0	1:59	2:08	1:52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6.1	6.5	5.8	1:33	1:36	1:30	15.7	14.2	13.1	1:38	1:37	1:40	3.4	3.5	3.3	1:13	1:14	1:12	7.2	7.3	7.1	1:17	1:33	1:21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5.5	6.3	4.8	0:50	0:55	0:44	4.2	4.5	3.8	0:48	0:50	0:46	0.7	0.7	0.7	0:40	0:44	0:36	3.6	4.2	3.1	0:57	1:63	0:50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	2.0	2.2	1.8	0:31	0:30	0:32	1.0	2.1	1.8	0:29	0:30	0:29	0.3	0.3	0.2	0:28	0:27	0:30	0.8	0.9	0.8	0:32	0:26	0:37			
기타 여가관련 행동	1.2	1.4	1.0	0:21	0:18	0:25	1.1	1.3	0.9	0:21	0:19	0:25	0.1	0.1	0.0	0:10	0:10	0:00	0.3	0.4	0.3	0:18	0:15	0:21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요일에 여가의 가족공유가 증가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참여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53.2%에 1시간 42분, 미취학 자녀가 9.9%에 1시간 33분, 그 외 가족이 38.8%에 1시간 39분으로 배우자와 함께 미디어 이용에 참여하는 비율과 평균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평일에 비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는 배우자의 경우가 16.6%에 37분, 미취학 자녀의 경우가 4.6%에 35분, 그 외 가족의 경우가 19.4%에 37분으로 나타나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 참여하는 경우 행위자 비율의 증가는 가장 두드러졌지만 평균시간의 증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교제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9.2%에 20분, 미취학 자녀의 경우는 1.6%에 5분, 그 외 가족 및 친척의 경우는 10.7%에 27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행위자율 및 평균시간의 증가는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가 가장 높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율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11.2%에 23분, 미취학 자녀의 경우는 2.5%에 14분, 그 외 가족의 경우는 5.7%에 5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공유증가 비율과 평균시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종교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율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7%에 1시간 1분, 미취학 자녀의 경우는 1.3%에 30분, 그 외 가족의 경우는 4%에 33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 역시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행위자 비율이 높은 여가활동은 교제활동, 일반인 학습,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이고 평균

시간이 높은 활동은 일반인의 학습, 종교 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 기타 여가관련활동으로 나타나 종교 활동을 제외하고는 남녀 간에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 우위 활동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에 대부분 여가활동에서 여성이 행위자 비율이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도 일반인 학습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의 평균시간이 높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과 공유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하여 일요일의 여가활동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족공유형태에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여가활동에서 배우자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가 미취학 자녀나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증가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요일에도 미디어 이용을 가족과 함께 더 많이 공유하기는 하지만 평일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적극적 여가 활동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며 가족 중 특히 배우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의 종속변수는 첫 번째로, 가족 즉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 중 한 사람 이상과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한 경우인 가족여가 공유여부가 되며 두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만 추출하여 배우자와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한 경우인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여부가 되며 마지막으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들만 추출하여 미취학 자녀와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한 경우인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 공유여부가 된다. 단,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응답자의 ‘그 외 가족 및 친척’ 존재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문항이 없어서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만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가족 및 친척 공유 여가 결정요인의 분석은 제외하였다.

1)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은 <표 8>과 같다. 평일의 경우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일요일의 경우 성별, 노동시간, 미취학 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성역할 태도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평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대와 50대 모두 평일 및 일요일 가족여가 공유를 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나이 대에는 학생인 20대에 비해 수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2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가 63%, 30대가 73.9%, 40대가 78.9%, 50대가 71.5%이다(통계청, 2012). 이는 가족 전체의 여가공유 결과는 아니더라도 남편의 연령이 젊을수록 주당 부부의 총 공유여가 시간이 증가한 이기영 외 2인(1995)의 연구와 연령과 부부간 여가 공유가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Barnet-Verzat et. al.(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평일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일요일은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전문대 및 대졸 집단에서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전문대 및 대졸집단이 주휴제도가 잘 마련된 안정적인 직군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통계청의 조사결과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임금근로자의 경우 약 76.7%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고졸의 학력을 가진 임금근로자는 약 62.1%가 정규직에 종사하였다(통계청, 2011).

이는 남편 혹은 부인의 교육수준이 부부간 여가 공유나 부모 자녀 간 여가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이기영 외 2인, 1995; 이승미·이기영, 1998; Barnet-Verzat et. al., 2007; Roeters & Treas, 2010; Yeung et al.,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동시간에 따라서는 평일 중간정도의 노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노동을 하지 않거나 중간보다 적게 하는 집단에서는 가족여가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대로 노동시간이 높은 집단에서는 평일 가족여가를 즐길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노동시간이 가족여가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 혹은 부인의 주당 노동시간이 부부간 여가 공유나 부모 자녀 간 여가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Barnet-Verzat et. al., 2007; Bryant & Zick, 1996; Kingston & Knock, 1987; Roeters & Treas, 2010; Yeung et al, 2001)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인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100-200만원인 집단에 비해 소득이 없는 집단의 평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일요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편 혹은 부인의 소득이 부부간 여가 공유나 부모 자녀 간 여가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이승미·이기영, 1998; Roeters & Treas, 2010; Yeung et al,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평일과 일요일 모두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있는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평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미취학 자녀의 존재로 인해 여가보다는 자녀 보살피기, 가사노동 등 다른 영역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집단의 평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교육비 증가로 더 이상 맞벌이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맞벌이 집단의 가족여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부부의 취업여부가 부부간 여가 공유나 부모 자녀 간 여가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이기영 외 2인, 1995; 이승미·이기영, 1998; Barnet-Verzat et. al., 2007; Roeters &

Treas, 2010)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평일 여성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취업에 비해 여성의 취업이 적어 절대적인 시간량이 많으며 전통적으로 자녀보살피기 등의 업무는 여성이 담당해왔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남성에 비해 많을 가능성이 크다. 평일과 일요일 모두 20대 집단에 비해 40-50대 집단의

〈표 8〉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

변인	구분	평일			일요일		
		상수항					
성별 (기준:남성)	여성	0.642	***	0.178	1.110	**	0.397
연령 (기준:20-29세)	30-39세	-0.083		0.114	-0.293		0.273
	40-49세	-0.406	**	0.119	-0.569	*	0.280
	50-59세	-0.352	**	0.126	-0.788	**	0.292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0.015		0.066	-0.165		0.135
	전문대 및 대졸	-0.018		0.051	0.343	**	0.123
	대학원이상	-0.222		0.120	-0.269		0.274
노동시간 (기준:중)	없음	0.288	**	0.100	0.308		0.221
	하	0.147	*	0.059	0.201		0.135
	상	-0.164	**	0.057	-0.196		0.124
개인 월평균소득 (기준:100-200만원 미만)	없음	0.438	***	0.098	0.124		0.214
	100만원 미만	0.032		0.070	0.056		0.147
	200-300만원 미만	0.067		0.066	0.210		0.146
	300만원 이상	-0.048		0.071	0.471	**	0.171
배우자 유무 (기준:없음)	있음	0.509	***	0.095	1.183	***	0.187
미취학자녀 유무 (기준:없음)	있음	-0.198	**	0.064	-0.288		0.150
맞벌이 여부 (기준:비맞벌이)	맞벌이	-0.210	***	0.054	-0.239		0.124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0.051		0.033	-0.024		0.074
N		10902			3712		
-2 log likelihood		13113.362			2989.944		
Chi-Square		449.429***			135.035***		
Degree of freedom		18			18		

* p<.05, ** p<.01, *** p<.001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이 나이의 수입노동으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젊은 층에서의 가족여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일요일 전문대 및 대졸이상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이는 보다 안정적인 복지제도, 주휴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일 노동시간이 중간 정도인 집단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노동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가족여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더 큰 반면, 중간보다 많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나 노동시간이 절대적인 여가시간을 결정하므로 노동시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100-200만원의 개인 월평균 소득을 갖는 집단에 비해 없는 사람들의 평일 가족여가 가능성이 높았으며 일요일의 경우 오히려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가족여가 가능성이 더 높았다. 평일 일요일 모두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있는 집단의 가족여가 가능성이 높았으며 미취학 자녀가 없는 가족이 평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마찬가지로 비맞벌이 집단의 평일 가족여가 가능성이 더 높았다.

2)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 결정요인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 결정요인은 <표 9>와 같다. 평일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 소득, 배우자 유무, 미취학 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성역할 태도, 일요일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평일과 일요일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평일과 일요일 모두 배우자와의 여가를 공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표 8>의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 자녀 및 다른 가족원 보살피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¹⁾ 상대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보낼 시간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평일의 경우 기준집단인 20-29세에 비해 모든 집단에서 배우자와의 여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일요일의 경우 30대만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공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표 8>의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의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노동에 주로 시간을 할애하게 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 등에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평일은 중졸 집단이, 일요일에는 전문대 및 대졸집단의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았는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노동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로 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 반면, 전문대 및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들은 개인적 가치, 교육 등으로 인하여 가족 또는 배우자에 대한 가치가 클 가능성이 있어 평일 시간 부족으로 배우자와의 여가를 즐길 수 없으나 일하지 않는 일요일 활용해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유호(2004)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에 대해 우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평일의 경우 노동을 하지 않거나 노동시간이 긴 집단의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 가능성이 낮았는데 특히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절대적인 시간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1) 유배우자 가사노동 요일평균: 남성 29분, 여성 3시간 21분 / 유배우자 가족 보살피기 요일평균: 남성 14분, 여성 1시간 5분(통계청, 2010).

여가를 즐기는데 쓰기 보다는 가사노동, 가족 보살피기 등에 분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자와의 여가를 공유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09 생활시간조사 결과 미취업 여성의 가사나동은 요일 평균 3시간 32분, 가족 보살피기는 1시간 9분으로 조사되었다. 여가는 6시간 3분으로 적지는 않았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을 미디어 이용에 할애하였다(통계청, 2010).

평일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없고, 비맞벌이인

집단의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커 <표 8>의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사람이 평일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았다.

정리하면, 여성의 경우 요일에 상관없이 가사노동, 자녀 또는 다른 가족원 보살피기 등으로 인한 시간제약으로 배우자와의 여가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 8>의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에서는 평일 여성이 남성에

<표 9>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 결정요인

변인	구분	평일			일요일		
	상수항	1.041	***	0.143	1.826	***	0.282
성별 (기준:남성)	여성	-0.287	***	0.058	-0.224	*	0.107
연령 (기준:20-29세)	30-39세	-0.282	**	0.101	-0.386		0.204
	40-49세	-0.586	***	0.106	-0.725	**	0.210
	50-59세	-0.346	**	0.113	-0.610	**	0.223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0.137	**	0.064	-0.072		0.119
	전문대 및 대졸	0.005		0.048	0.345	***	0.094
	대학원이상	-0.031		0.116	0.257		0.236
노동시간 (기준:중)	없음	-0.192	*	0.096	0.144		0.185
	하	0.062		0.057	0.013		0.109
	상	-0.259	***	0.058	-0.173		0.107
개인 월평균소득 (기준:100-200만원 미만)	없음	0.509	***	0.092	0.256		0.176
	100만원 미만	-0.049		0.070	-0.207		0.126
	200-300만원 미만	0.018		0.065	0.069		0.123
	300만원 이상	-0.062		0.070	0.093		0.135
미취학자녀 유무 (기준:없음)	있음	-0.207	***	0.059	-0.169		0.117
맞벌이 여부 (기준:비맞벌이)	맞벌이	-0.284	***	0.053	0.035		0.103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0.067	*	0.031	-0.111		0.060
N		10359			3549		
-2 log likelihood		14015.068			4062.676		
Chi-Square		276.877***			84.774***		
Degree of freedom		17			17		

* p<.05, ** p<.01, *** p<.001

비해 가족공유 여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즉, 평일 여성이 가족공유 여가 가능성은 많지만 주된 대상이 배우자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대 젊은 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평일 및 일요일에도 배우자와 함께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평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제약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반대로 일요일의 경우 전문대졸 또는

대졸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배우자와의 여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시간, 가치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평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이 길어 시간제약을 받는 경우, 보살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배우자와의 여가 시간을 즐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 수준이 매우 낮으며 부부관계, 삶의 질 또는 만족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 바람직하다고

〈표 10〉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 여가 결정요인

변인	구분	평일		일요일	
		상수항			
성별 (기준:남성)	여성	0.218	0.150	0.289	0.243
연령 (기준:20-29세)	30-39세	-0.030	0.128	0.292	0.210
	40-49세	-0.169	0.176	-0.179	0.277
	50-59세	-1.548	0.797	-1.819	1.125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0.230	0.298	0.290	0.483
	전문대 및 대졸	-0.001	0.093	-0.024	0.150
	대학원이상	0.070	0.231	-0.422	0.398
노동시간 (기준:중)	없음	1.174	*** 0.243	0.055	0.386
	하	0.220	0.136	-0.260	0.213
	상	-0.166	0.146	-0.169	0.212
개인 월평균소득 (기준:100-200만원 미만)	없음	-0.455	0.245	0.084	0.379
	100만원 미만	0.035	0.174	0.268	0.310
	200-300만원 미만	-0.255	0.144	0.434	* 0.211
	300만원 이상	-0.451	** 0.168	0.431	0.255
배우자 유무 (기준:없음)	있음	0.301	0.456	1.652	1.143
맞벌이 여부 (기준:비맞벌이)	맞벌이	0.027	0.132	0.133	0.196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0.021	0.068	0.009	0.111
N		2635		858	
-2 log likelihood		3077.883		1146.129	
Chi-Square		176.975***		25.905	
Degree of freedom		17		17	

* p<.05, ** p<.01, *** p<.001

는 볼 수 없다.

3)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 여가 결정요인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 여가 결정요인은 <표 10>과 같다. 평일의 경우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 소득, 일요일의 경우 개인 월평균 소득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시간이 없는 즉, 노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평일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평일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낮았다. 월평균 소득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산업 및 야간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길거나 직종이나 작업의 특성 상 노동강도가 센 경우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여러 제약에 의해 미취학 자녀와 여가를 공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외숙 외 2인(1991)에서도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시간이 긴 경우 가족이 함께 여가생활 하는 시간이 부족하며 야근 등이 있는 직접인의 경우 가족이 함께 여가 즐기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요일의 경우 200-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갖는 중간 집단의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았다.

정리하면,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 여가 결정요인은 많은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 소득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동시간과 소득 간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부모의 근무상태에 따라 자녀와의 여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노동을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량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량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가의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자녀와의 여가 공유는 자녀의 인성 및 사회성 발

달, 다양한 문화 전송 및 체험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윤소영·윤지영, 2004; Shaw, 199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년에 조사된 통계청 「제 3차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20-60세 미만의 기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공유 여가시간의 실태를 분석하고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 되었는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일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시간은 52분, 일요일은 2시간 8분으로 주로 배우자나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여가가 크게 증가했을 뿐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는 단 10분 증가하였다. 또한 주말의 가족여가 증가분은 주로 미디어 이용에 기인한다. 특히 평일의 경우 미디어 이용과 교체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가족과 공유하는 활동이 없었다. 일요일의 경우 교체활동이나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에서 다소 증가했으나 시간량이 10-20분 내외로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가족이 공유하는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 특히, 배우자 또는 미취학 자녀와의 적극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하겠다.

다른 선진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가 시설 또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여가를 즐기는데 있어 시설,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 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 박물관, 유적지, 공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에서 탈피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가족여가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핵가족 및 단독가구의 증가가 가족이기주의를 조장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 외 가족 및 친척 나아가 지역 내 이웃주민과도

함께 여가를 즐기으로써 가족 내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가족공유 여가를 즐기는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혼 성인은 평일 약 70% 정도, 일요일 약 85% 정도 가족여가를 공유하며 배우자와는 평일 약 50%, 일요일 약 70%, 미취학 자녀와의 평일 7%, 일요일 약 14% 공유하였다. 평일과 일요일 가족과 공유하는 여가의 주된 활동은 미디어,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요일의 경우 미디어 이용의 증가가 가장 커 일요일 늘어난 여가비율 및 시간은 미디어 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적은 비율이지만 미디어 이용 외 다른 여러 가지 활동도 보이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거의 1시간 이상인 것을 볼 때 일부 집단에서는 가족과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요일 배우자와 종교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긴 것을 볼 때,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활동이 매우 중요한 가족공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활동이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여가활동으로 작용한다면 가족들끼리 이러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가족공유 여가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 공유도 주로 미디어나 교제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여가활동 공유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취학 자녀와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가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우리사회가 확대가족 위주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 외 가족 및 친척과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여성이 더 많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 외 가족 및 친척과 여가 공유가 여성이 높은 이유는 여성의 높은 교제활동 공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 및 친척과도 마찬가지로 미디어나 교제활동이 전부여서 이들

가족과도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적극적 여가 활동이 미디어 이용보다 활동참여자에게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가활동의 균형이 중요하다.

일부 집단에서 미취학 자녀와 다양한 적극적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가족과 공유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활용한 ‘가족여가 멘토 형성’ 또는 ‘가족여가 자조모임’등과 같은 지역 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또한 그 외 가족 친척들과도 세대 간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기타 민간 가족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하겠다.

셋째,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집단은 주로 여성이며 연령이 많은 층보다는 젊은 층이며 대졸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시간이 짧거나 일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일요일의 경우 오히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300만원 이상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배우자가 있으며 미취학 자녀가 없는, 맞벌이 집단에서의 가족공유 여가 가능성이 높았다.

반대로 가족여가 가능성이 낮은 집단은 남성이며 연령이 많으며 노동시간이 길며 배우자가 없거나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를 하는 특성을 보였다. 즉 상대적으로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집단의 경우 가족끼리 여가를 함께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간부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배우자와의 여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히려 가능성이 적었는데 이는 요일에 상관없이 가사노동, 가족원 보살피기 등으로 인한 시간제한으로 배우자와의 여가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여가 공유 결정요인과 비슷하게 연령수준이 낮은 집단의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았으며 평일은 교육수준이 중졸 수준의 집단이, 일요일은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의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아 이는 교육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 즉, 일하지 않는 집단의 평일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낮아 어느 한 쪽 배우자가 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에 비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노동시간이 긴 집단은 시간적, 신체적 한계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인 부부의 경우 평일 배우자와의 여가 가능성이 낮아 특히 어린자녀가 있고 맞벌이 하는 가정의 시간적 제약이 부부 여가에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는 전통적일수록 평일 배우자와 함께 여가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에 있어 성역할 태도 변수도 영향을 미치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배우자와 함께 여가를 보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 여가는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 소득만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노동시간이 없는 사람이 평일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 가능성이 높았으며 개인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많은 집단이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자녀와 함께 여가를 공유하는데 있어 노동 여부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역시 노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때, 소득이 높은 집단은 노동 시간도 많을 가능성이 있어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대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노동 여부를 떠나 노동 환경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가족 전체와 여가를 공유하는 가능성은 여성이 더 많았던 반면, 배우자와의 여가는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나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여가를 공유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전체와 배우자와의 여가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공유할 가능성이 컸으며,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의 일요일 가족여가 가능성이 커 이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가족 전체와 또는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는 오히려 노동을 하지 않거나 노동수준이 낮은 집단의 공유 가능성이 더 큰 반면, 배우자와의 여가에 있어서는 노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 공유 가능성이 적었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없는 집단이 가족 전체 또는 배우자와의 공유 가능성이 많은 반면, 300만원 이상으로 많은 집단의 경우 평일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은 낮았지만 일요일은 가족 전체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미취학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인 집단의 경우 가족 전체 또는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은 낮아 이들의 시간 제약으로 인해 가족공유 여가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집단의 특성을 시간자원, 인적자원, 경제적 자원, 가치관 등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시간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을 하지 않거나 노동시간이 짧고, 맞벌이인 경우 절대적인 시간량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많기 때문에 가족여가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 자녀와 관련된 인적자원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적자원(배우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아지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여가를 공유 한다기 보다 부모가 미취학 자녀와의 여가를 공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장소, 에너지 등의 자원에 대한 요구가 더 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우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가족에 대해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에 대해서도 연령이 많은 층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적극적일 수 있다. 이는 여가를 일여가형, 일중심형, 가족중심형, 여가중심형 4가지로 유형화 한 차승은(2008)의 연구에서 가족중심형 여가를 즐기는 집단의 성역할 태도가 가장 근대적으로 나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물론 가족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시간량 보다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여성의 교육수준 및 취업의 증가, 양육비 및 교육비 마련, 노후대비의 부채 등으로 인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족이 공유하는 절대적인 시간량을 조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은 시간이라도 할지라도 가족 모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가족공유 여가활동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족여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가족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직 내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는 가족여가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여가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가족여가 시설의 확충, 가족여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초로 “함께 한 사람”을 포함하여 조사한 「제 3차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공유 여가시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가족여가의 중요성의 강조하고 나아가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가족여가 공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시간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가족공유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면 가족공유 여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모델에서는 적은 시간이라도 행위 자체를 했으면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꼭 시간량이 많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쌍이 아닌 어느 한 쪽이든지 배우자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부부를 쌍으로 분석하여 서로 간의 가족공유 여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손문금(2010)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한 쪽은 여가를 공유한다고 느껴도 다른 한 쪽은 여가를 공유한다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이들의 공유 시간을 파악하고 인지의 차이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유 여가 결정요인에서 배우자,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 여가 결정요인은 분석하였지만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 여가 결정요인은 자료에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수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연구자가 요구하여 실제로 생활시간 조사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계선자 외 13인(2009). 가족과 문화. 서울: 도서출판 신정.
- 2) 김외숙(1977). 가족레크레이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1). 가족자원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4) 나정화·김정숙(2000). S-PLUS 사용법 및 프로그래밍. 서울: 자유아카데미.
- 5) 문숙재·윤소영·차경옥·천혜정(2005). 여가문화와 가족. 서울: 도서출판 신정.
- 6) 손문금(2010).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슈분석, 3호, 1-11.
- 7) 송정애·이양훈·정해은(2009). 가족과 생활문화. 경기: 양서원.
- 8) 안동선(1982).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10) 윤소영·윤지영(2003). 가족여가의 활동유형 및 본질에 대한 연구. 여가학연구, 1(2), 73-81.
- 11) 윤소영·윤주(2008).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2)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13) 이승미·이기영(1998).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23-136.
- 14) 이주연(2009). 가족기능과 여가제약 및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기혼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학 연구, 6(3), 135-156.
- 15) 이호경(1995). 가족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 YMCA 성인회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임정빈 외 4인(2008). 가정관리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 17) 조희금 외 6인(2010). 건강가정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 18) 지영숙·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 유형: 자녀교육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3-165.
- 19)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취업한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03-116.
- 20) 천혜정(2004). 가족 여가 참여 동기 및 가족여가 활동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2), 1-13.
- 21) 최유호(2004). 세대별 부양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통계청(2010). 2009 생활시간조사.
- 23)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24) 통계청(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 25)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71-84.
- 26) Barnet-Verzat C., Pailhé A. & Solaz A.(2007). Being together or entertaining together? The impact of children on couples' activity synchron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Society for Population Economics, Paris.
- 27) Bryant, W. K. & Zick, C. D.(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1), 227-237.
- 28) Davey, A. J. & Paolucci, B.(1980). Family interaction: A study of shared time and activities. Family Relations, 29(1), 43-49.
- 29) Gatenby, R.(2001). Married only at the weekend? A study of the amount of time

- spent together by spouses.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1-27.
- 30) Hill, M, S.(199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 427-451.
- 31) Kingston, P. W. & Nock, S. L.(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52(3), 391-400.
- 32) Knowles, S. J.(2004). Marital satisfaction, shared leisure, and leisur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ith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es. Oklahoma State University(Citation/Abstract).
- 33) Orthner, D. K.(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91-102.
- 34) Roeters, A., & Treas, J. K.(2010). Parental work demands and parent-child, family, and couple leisure in Dutch families: What g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32(3), 269-291.
- 35) Sayer, L.(2010). Gender equality and time together for U.S. Partnered parents. 32th Time Use Conference.
- 36) Shaw, S. M.(1999).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 on family activities. In W. Stewart & D. Sandahi(Eds.), *Abstract from the 1999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p.7). Ashburn, VA: National Park and Recreation Association.
- 37) Yeung, W. J., Sandberg, J. F., Davis-Kean, P. E. & Hofferth, S. L.(2001). Children's time with fathe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36-154.
- 38) 뉴스천지(2012). 여가생활에도 경력이 필요하다?. 2012.01.13.
- 39) 연합뉴스(2011). 주5일제 확대 대비 가족 여가공간 확충. 2011.09.26.
- 40) 인터넷 자료 생활시간조사 홈페이지. <http://survey.go.kr/lifestyle>.
- 41) 인터넷 자료 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en.wikipedia.org>.
- 42) 인터넷 자료 SPLUSBOOK 홈페이지. <http://www.splusbook.com>.

- 투 고 일 : 2012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2월 22일